

# 영광군 전남 최고 청렴 지자체로 '우뚝'

청렴도 1위에 청렴대상 수상...2년전 18위에서 역대급 반전  
열린 행정 바탕 결의대회·콘서트 등 청렴문화 확산 주력 성과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 청렴 대상 수상... 영광군이 전남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로 거듭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 중 1위에 올라서는가 하면, 전남지역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청렴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갖춘 자치단체로 우뚝 섰다.

특히 지난 2015년만 해도 전남 22개 시·군 중 1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영광군이 전남 1위에 오르는 '역대급 반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광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의 경우 전남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8.00점을 받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군·7.54, 시·7.60)보다 높고 지난해보다도 0.17점 향상됐다.

내부청렴도는 8.11점, 외부청렴도는 7.

97점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에 비해 외부에서 바라본 청렴도가 0.21점 높아진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광군 인력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열린 행정과 투명한 리더십, 꼼꼼하고 세분화된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정과 부패 척결에 공을 들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투명함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뿐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연극 공연, 청렴콘서트, 청렴 끝판벨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지금껏 추진해온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자율적 제도 개선 노력, 내부통제제도 활성화정책 등도 충실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청렴대상'을 수상한 데도 이러한 성과와 노력이 한몫을 했다.

영광군은 또 집단 및 고충민원의 경우



영광군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개최한 청렴콘서트. 김재동씨가 강사로 나서 강연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처리 과정에서 고충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하는 행정을 펼친 점이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외부청렴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

한 노력이 빛을 보면서 전남 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 청렴대상 수상 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부패 없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내년 영광서 'e-모빌리티 엑스포' 열린다

산자부 예산 5억 확보



e-모빌리티 연구센터 조감도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운송수단인 'e-모빌리티' (e-mobility) 사업의 현재와 미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영광에 마련된다.

e-모빌리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3·4륜 초소형 차량), 전기이륜차, 세그웨이 등 전기구동운송수단으로 거제도시화, 사회고령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통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미래 이동수단이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10월 영광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에서 열리는 '제 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를 위한 산업자원부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엑스포는 영광군이 미래 이동수단인 e-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전남도, 자동차부품연구원, (사)한국 스마트e-모빌리티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전체 사업비로 20억원이 투입된다.

영광군은 그동안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e-모빌리티의 연구 개발·

육성에 노력해 왔다.

대마산단에 들어선 e-모빌리티 연구센터는 부지 7만6000㎡에 건축 3개 동 총 5100㎡, 실내 평가장비 26층, 실외 8층, 성능 시험장, 산학 공동연구소 등을 갖췄다. 5만1000㎡ 규모의 e-모빌리티 전용 실외환경 평가시설도 연구센터 바로 옆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영광군은 또 전남도·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함께 779억원 규모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진행중이다.

엑스포 개최는 이같은 사업의 연장선 상으로 e-모빌리티에 대한 홍보와 새로운 산업 수요를 창출, 중견·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구축에 활용한다는 게 영광군 구상이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대교의 일몰



영광군이 천열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찜질방은 온천 생각 간절해지는 겨울 이맘때 이용해볼만하다.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범성포 겨울전경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지는 계절, 선뜻 바깥 나들이를 계획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따뜻한 아랫목만 찾을 수 없는 노릇이다. 자녀를 둔 가족들은 더하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휴일마다 집안에만 있을 수도, 그렇다고 멀리 밖으로 나가기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멀리 가지 않아도 겨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갖춘 여행지가 적지 않다. 가장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남도 여행이 이맘때가 제격인 이유이기도 하다.

영광도 손색없는 남도의 겨울 여행지 중 하나다. 낭만이 있는 겨울바다, 겨울숲, 몸

낭만의 바다·따뜻한 온천·풍성한 먹을거리

## 영광으로 겨울여행 오세요

을 녹일 따뜻한 온천, 풍성한 먹을거리 등 다양하다. 영광군도 이같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 가족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영광은 '삼백'의 고장으로도 불린다. 예로부터 쌀·소금·눈 등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순백의 눈이 내려앉은 불갑산을 온화한 날씨에 둘러볼 수 있다는 건 남도지역, 영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한다.

스니 마라니타가 도착해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지역이면서 불갑산에 처음 세운 불갑사를 비롯한 4대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성지(聖地)가 다 있어 '성지'를 테마로 둘러보는 것도 좋다.

영광 천일염을 활용한 찜질방도 둘러볼 만하다.

영광 찜질방은 군이 직접 건립한 시설로, 소금 생산을 하지 않는 비수기(11월~4월)에만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설인데다, 여행의 피로를 식히는 데 좋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영광군, 전남도 투자유치 분야 최우수상

영광군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쓴 공로로 전남도의 투자유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투자유치 한마당<사진>'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시상금으로 1540만원을 받았다.

민선 6기 들어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과감한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친 결과,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수투자유치실적(60점), 투자유치 여건조성(20점), 투자유치 일반

행정(20점) 등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영광군은 대마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여온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항공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초당대 항공학부 캠퍼스를 유치하는가 하면, 호남 최초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업인 ㈜스페이스 등 29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8개사가 1554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상품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국내여행
- 할인항공권·KTX기차표
- 허니문·단체여행
- 골프투어·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겨울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	일정	가격
①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12월 31일(일)	99,000원
② 정동진·월정사·휴휴암 기차여행(무박 2일)	1월 05일(금)	120,000원
③ 태백산 눈꽃축제·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④ 정동진 일출·하이원스키장 관광 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	최소출발인원	가격
① 남이섬 자유여행(당일)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② 대둔산 케이블카 기차여행(당일)	2인부터 매일출발	75,000원
③ 남해 보리암·독일마을 기차여행(당일)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④ 서천 국립생태원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⑤ 서울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10인부터 매일출발	108,000원
⑥ 정동진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20인부터 매일출발	120,000원

  

섬여행 상품	최소출발인원	가격
① 홍도·흑산도 여행(1박 2일)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② 울릉도·독도 여행(2박 3일)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③ 거문도·백도 여행(1박 2일)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④ 청산도 여행(1박 2일)	1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⑤ 백령도 여행(1박 2일)	10인부터 매일출발	255,000원~
⑥ 대마도 여행(1박 2일)	10인부터 매일출발	290,000원~

  

버스여행 상품	최소출발인원	가격
① 고령 고분군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20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② 날뚝보소 밀양 버스여행(당일)	20인부터 매일출발	30,000원
③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운행	10인부터 매일출발	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